

“제가 교사인지 행정실무원인지 헷갈려요”

‘제5회 수업나눔축제’... 교사들 고민 사연 빗발 원격수업·생활지도 부족·행정업무 과중 등 ‘다양’

“6학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모니터에 게임화면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나 게임을 꺼버릴 수도, 끈 것을 확인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방과후 업무를 맡았는데, 교육복지라는 이름 하에 업무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업무에 파묻히면서 내가 교사인지, 교육복지사인지, 행정실무원인지 헷갈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 교사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12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석체현관에서 ‘제5회 수업나눔축제’ 두 번째 날 행사인 ‘초등학교 수업 나눔’을 진행했다.

“변화의 길 위에서 수업 고민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의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이를 장치한 제주동초 교사와 이완국 전 초등교사가 낭독한 뒤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들어온 고민 대부분 코로나19로 달라진 수업 환경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이나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한 문제 혹은 해프닝, 행정 업무 과중 등이다.

올해 전담교사 및 방과후 업무를 맡은 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 담임 교사의 문의 전화 등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돼 다행이라고 생각



12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석체현관에서 열린 ‘제5회 수업나눔축제’에서 이완국(왼쪽) 전 초등교사 교사와 정지훈 교사가 선생님들의 고민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초등교사는 “전담과목 외에 과목들도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보다 나은 콘텐츠를 만들 자신이 없다”며 “여기에 수업 중 학생의 태도나 생활지도에서도 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이완국 전 초등교사는

“언론에 이러한 교사들의 고민하는 모습을 비춰주면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며 “다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쓰인다. 그런 것들까지 신경쓰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업무를 하는 것까지는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고, 알아주는 건 타인의 몫이라고 생각할 것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시민사회단체 “4·3특별법 즉각 개정”

국회 앞 개정 촉구 투쟁선포식 도의회 4·3특위 릴레이 시위도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 모여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의 1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조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등 올해 안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국회 앞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12일 국회 앞 피켓 시위에 나선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왼쪽)과 시민단체 관계자.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는 특위 위원 외에 정민구 부의장, 김황국 의원도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위 의원들은 1인 피켓 시위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회의 이명수 국회의원을 찾아 100만 제주도민의 뜻을 담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전달했다. 의원들은 “지금도 그날의 트라우마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령의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103억 지급

사유시설 피해 주민 3786명

제주시는 지난 9월 제주에 내습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주민 3786명에게 13일까지 103억6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이미 집행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2억8400만원을 제외한 100억8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3억5400만원, 지방비 30억10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 3745명에 100억8000만원 ▷축산분야 31명에

1억4700만원 ▷수산분야 10명에 1억26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결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농약대의 경우 평균 58% 인상 등)을 적용할 예정으로, 지급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태풍 피해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요 생계수단과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미숙기자

신홍방파제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 발견

제주시 조천읍에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사진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48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홍방파제 인근에서 낚시줄에 걸린 거북이가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해당 사체는 길이



약 75cm, 폭 50cm, 무게 30kg으로, 죽은 지 4~5일 정도로 추정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 등의 흔적이 없이 해당 사체를 조천읍사무소에 인계했다. 강대혜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3일 금요일 음 9월 28일 (5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0%	
0%	성산 0%	
0%	고산 0%	
0%	서귀포 0%	

맑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11~12°C, 낮 최고 기온은 18~21°C로 전망되며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해돋이 07:04	달몰림 04:20
해질름 17:33	달맞이 16:24
물때 만조 09:06	간조 03:05
21:12	15:29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13/19°C
모레	맑음	12/20°C

생활·안전 기상정보

감기가능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보통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호적법)의 일일 의제 처리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우도초·중 ‘올해의 참 좋은 학교’ 선정

전국서 초 10교·중 5교 선정 섬지역에서는 우도가 ‘유일’

우도초·중학교(교장 강승민)는 12일 ‘2020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 좋은 학교는 교육부에서 농어촌의 장점을 살리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04교가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32교, 2차 동영상 자료 시연을 통해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섬지역 학교로는 전국에서 우도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다. 송은범기자

우도초·중학교는 ▷ 기초학력튼튼 학습코칭 ▷ 책품 생감품 책임있는 우도 ▷ I-happy 1133 긍정마인드 함양 프로젝트 ▷ 민주시민역량 함양 학생 다모임회의 ▷ 감성역량 Up 공감 버스킹 ▷ 마을 해녀들과 함께하는 호이호이 해녀사랑동아리 ▷ 마을 지킴이 환경사랑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녀사랑동아리 ‘호이호이’가 펼친 해녀항일투쟁 연극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선정됐고, 일본교수들이 집필한 ‘제주도 연구’ 논문집에도 실렸다. 또 우도환경사랑동아리는 한라일보가 주최한 ‘2020 한라환경대상’에 최우수로 입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자동차 매매·전문정비업 점검

제주시는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관리사업자 217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이달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련 조합과 협동으로 전문정비업 178개소, 매매

업 31개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문미숙기자

2020-2021 제주주민 제천방문의 해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투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독행사)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임원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옥순대교(옥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워크-약초술 담그기 체험(약초술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청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독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굿모닝제주투어 723-3350

제주풍익여행사 746-2200

늘푸른여행사 726-3344

파랑새여행사 744-1233

FM여행사 702-1950

현여행갤러리 725-0818

●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숙료(일부 항공편)